

## 大學에서의 教授法 考察

朴 德 圭  
(教育開發院 責任研究員)

.....  
 世界の 大學이 안고 있는 공통된 問題 中の 하나는 大學人口의 증가에 따른 學生들의 質低下現象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教授方法, 評價 等の 發展 없이 학생증원까지 겹쳐 大學教育의 質向上에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교육의 水準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方 案으로 大學教授法에 관한 理論을 정립해 보았다.  
 .....

### I

大學教授法이 教育學에서 연구되기 시작된 동 기와 시기는 精確하지 않으나 아도르노(Adorno)가 “대학교육에 대한 비판”에서 오늘의 대학교 育의 質적인 下落의 原因이 “教育學의 內在的 虛 僞” 때문이라고 규정한 것에서부터 비로소 大學 教育에 그 자리를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 다. 피히테(Fichte)가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의 대학은 學生들의 질에 관해서 전혀 문제시하지 않았 다. 教授가 이야기하는 학술이론이나 과학 을 알아듣지 못하는 學生이 대학에 들어왔을 리 도 없고 게으른 學生이 대학에 머무를 수도 없 었 기 때문이다. 이같은 特徵을 아직 도 서구의 몇 개 大學(영국의 옥스·브리지대학 등)에서는 지 니고 있으나 대부분의 大學들은 대학문화의 확대 와 고등학교 教育의 質 저하 등으로 대학에 들어

오는 學生들의 資質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회가 발전(?)하여 대학인구가 증가 했다고 보는 社會進化論의인 자연현상에 교육학 이 작용하여 대학문화가 확대되었고, 교육학이 인간에 대한 연구를 지나치게 교육과 관련시켰 으므로 학교 教育의 水準을 낮추었으며 이같은 흐름은 결국 대학교육이 理想과 特殊性을 유지하 는 데에도 작용하여 “大學教育의 高等學校化”를 초래하였다. 이는 교육학이 학문으로서 많은 공 을 세웠으나 “內在的 虛僞” 때문에 스스로 짊어 진 矛盾도 또한 많다는 것을 뜻한다. 서구의 교 육학이 이러한 自己矛盾을 자각하여 大學교육에 서 존재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교수법을 연구하는 것은 타 학문들의 無心 속에서 도 당연 하다 하겠다.

한국의 現實에서 大學教育이 일반화된 것이 교 육학의 功이건 사회의 要求였던 관계없이 다행 스러운 일이나 大學教育의 特殊性에 비추어 불

때 역시 질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교육의 質向上을 위한 제도 중의 하나인 卒業定員制 역시 본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우리의 대학에 뿌리를 내렸어야 한다. 즉 졸업생수가 얼마가 되는 상관없이 학생들의 학문에 관한 정도가 大學人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면 학사자격증을 줄 수 없는, 제도 이전의 자연스러운 원리가 定立되어 있었어야 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런 점들을 근거로 우리의 대학들도 이제 “확장의 시기”에서 “정립의 시기”로 대학교육의 質을 높이는 데 과학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겠다. 이때의 이 과학적인 방법은 곧 교수법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대학교수법은 教授組織의 넓은 의미이기 때문이며, 教授方法의 부족을 메꿀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교수법은 學術教授法을 돕고 대학이 학문연구의 場이므로 大學教授法→學術教授法→學術理論으로 발전하는 첫단계이기 때문이다.

## II

大學教授法은 학문연구와 학문전달에 관한 이론으로서 두 가지 임무가 있다. 하나는 학문 그 자체가 도달해야 할 수준을 유지하도록 모든 학술이론의 결론이나 여러 방향의 연구 결과를 綜合하고, 秘敎的이고 抽象的인 학술용어를 解析해야 하는, 教授(professor)의 학술적인 전달방법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은 전달방법을 教授의 丙面에 학술적으로 성숙시키는 일이다. 즉 大學教授法은 교수의 자질을 심화시키며 학문의 연구와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에 학술적인 자세를 갖게 하는 학문인 것이다. 大學教授가 자신의 내면에 학문에 대한 자신감이나 知的으로 성숙된 인품과 학식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때 學術的인 방법으로 연구하게 하고 토론하게 하며 그 평가 역시 학술적으로 냉정하고 객관성 있게 실행한다면 교수로서의 資格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교수법은 그렇지 못한 대학교수들에게 필요하며 오늘날의 대학교수의 교수 방법론적인 결핍증을 치료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대학은 연구를 통하여 학문을 生産하고 教授를 통하여 학문을 再生産한다. 大學教授法은 연구를 하여 생산된 학문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教授方法이라 할 수 없고 教授(instruction)의 構成要素에 국한시켜 생각하면 教授方法論이라 할 수 있으나, 이 두 가지와 학습의 形態와 매체, 과정, 教授 行動上의 성공여부와 양호성, 평가 등 교수(professor)와 학생(student) 사이의 학술활동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行動이 大學教授간, 또는 學問 간에 이루어지는 현상(Phänomen)을 學術教授法이라 규정한다. 학문은 학술교수법을 거쳐 글로 표현되어야 하므로 아무리 좋은 글이라고 하더라도 대학교수법→학술교수법으로 발전된 것이 아닌 이론은 학술이론이 아니다.

大學教授의 역할은 학생들과의 사이에서 기존 또는 새로운 이론을 토의에 의해 재생산하고, 그 학문과 동급의 학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客觀性을 얻은 다음 글로 발표하여 다시 토론의 대상이 되도록 할 때 비로소 하나의 學問理論으로 정립되는 단계가 시작되는 것이며, 이의 반복이 곧 대학교수의 학문생활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학자의 학문을 主觀 없이 “소개하는 것”은 학술활동이 아니다.

예를 들어 존·듀이의 이론을 소개할 때 소개자는 자신이 먼저 존·듀이를 공부했어야 하며 충분한 討論, 思考過程을 거치고, 존·듀이의 이론에 관한 여러 점의 비판이론 등을 모두 이해한 후 우리 나라의 학생, 학자들의 해석까지 듣고 나서 자기의 올바른 見解를 피력할 때 비로소 미국의 존·듀이 이론이 한국에 소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강의를 듣거나 소개객자를 보면 존·듀이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의 學問理論들이 변색되었거나 왜곡되었거나 또는 다른 외국인 학자의 해석이 곧 자기 것인 양 變裝된 것이 너무나 많다. 이런 점에서도 대학교수법, 학술교수법의 중요성은 우선 학자들의 자기교육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대학교육과 학문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 III

大學教授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학 교수법을 論議해야 하겠지만 이 글은 한국의 대학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教授方法 중 서구의 대학에서는 이미 전통화된 교수방법인 강의, 그룹토의, 학생들의 자기학습 등에 대한 分析과 최근 새로운 방법으로 대두된 학생中心 학습방법에 대한 학습적인 견해를 批判教育學的으로 기술하려 한다. 대학교수방법의 개선은 大學教授들의 자질을 간접적으로 향상시키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 1. 講 義

미국의 일부대학에서는 講義開設을 줄이고 그룹토의를 대학 학습방법으로 채택한 지 오래다. 서구의 일부 “비판대학”들도 강의를 줄였거나 또는 法定授業時間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미 1919년에 막스·베버(Max Weber)는 강의실의 學生數와 강사의 講義能力에 관한 관계에서 강의 외에 별다른 학습방법이 없었던 때에도 어떤 강의를 학생수의 많고 적은 정도가 강의의 경제성, 내용이 좋고 나쁨 등을 간접적이거나 證據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대학강의에 대한 긍정적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다. 벤케(Wenke)는 大單位 講義는 정신적 커뮤니케이션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한 예로 60년대말 서구의 학생운동이 고조에 달했을 때 “비판이론”에 관한 강의실은 초만원이었다는 사실을 들었다. 대학강의의 비판론자 중 대표자는 호하이머(Horkheimer)이다. 그는 “대학강의는 說敎의 불행한 世俗化이다”라고 했다.

이러한 대학강의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강의의 長點은 조직적인 안내, 특수한 내용의 확실한 要約과 概觀의 주입 등에 있다. 몇 개의 실험결과를 보면 강의를 성공하는 것은 첫째는 학문이론의 關係性을 요약했을 때와 둘째는 여러 가지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론의 關係性을 취급하였을 때이다. 이러한 증거는 학문의 성격에 따라 講義 題目構造의 조직화와 강사의 인지능력의 형태에 좌우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

다. 강사 1인에게서 많은 학생이 배울 수 있다는 경제성(?)은 大學講義의 장점이 될 수 있다 또는 없다는 등의 논의거리가 아니다.

강사와 학생간의 相互作用面에서 대학강의는 이해정도의 컨트롤이 불가능하며, 강사와 학생 모두에게 Feed-back의 결핍, 학생들의 수동적 태도, 일방통행적인 커뮤니케이션 등의 特性으로 인해 대학교수법에서 중요시하는 학술이론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討論 또는 相互作用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되었다. 이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대학강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레잉(Laing)은 講師의 열성, 인격, 명쾌한 용어사용과 이론의 정확하고 논리성에 맞는 전개, 유우머 등에 따른 大學講義도 중요하다고 했다.

강의의 청강자수가 적은 경우에 따라서 학습 결과를 조사한 학자들은 서로 相反된 결론을 얻고 있다. 학기말 필기시험이나 졸업시험의 결과는 적든 많은 같은 결과가 나왔고, 어떤 조사는 數가 적었을 때에 좋은 결과, 또는 많았을 때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므로 강의의 長短點은 청강자수에 의해서는 판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겠다.

많은 조사들의 共通點은 학생들이 소그룹의 강의를 원하고 있다는 결론이며, 블룸(Bloom)의 수학 강의와 사회학 강의에 대한 연구는 그룹토의와의 비교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토론보다 강의에서 學習內容에 더욱 집중되었다. 비이치(Beach)의 강의, 토론, 그리고 자율 소집단의 비교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個性과 愛好性 또는 要求 등이 대학자체의 능력에 달려 있음이 발견되었고 결정적인 개성의 차원은 길포우드(Guilford)의 S-skala에서의 sociability 라고 결론을 얻었다.

강사의 機能面에서 관찰된 강의는 강사 자신은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이 항상 있으며 一方通行의인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학습설리적인 면, 학습경제적인 면의 缺點이 있다고 판정되었다. 강의가 강사에게 주는 利點은 청중의 동일성과 상대성이 강사를 보호해 주며 이런 현상은 정신적으로 어떤 合意點에 도달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은 강사의 이야기 내용에 전적으로 동

감해야 하며 의심의 여지 없이 직접 받아들여야 하고 이런 점에서 抑壓적인 학습방법이라 할 수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강의는 자연 과학분야보다 더 큰 구실을 하고 있으나 강사 자신의 모든 力量의 작용으로 학문적인 객관성이 주관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장 큰 矛盾은 학생들의 비판력, 판단력, 해방력 등의 성장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발전의 기회가 沮止되는 점이다.

## 2. 그룹 Arbeit 와 討議方法

세미나와 연습은 강의와 함께 보편화된 대학교수방법이다. 연습이나 세미나(초급, 중급, 고급, 석사과정, 박사과정 세미나 등)는 학생들이 연습하는 것을 前提로 가능한 학습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학습형태는 학생들이 활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학생 개인의 능력이 학습의 成就에 차이를 갖게 한다.

학습 참가자의 受容力이 있는 자세와 흥미는 조건에 따라서 변화한다. 토의에 작용하는 相互關係는 학생과 학생, 학생과 강사 사이에 이루어지므로 강사의 생각에 반대되거나 잘 모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되도록 피하려는 현상이 일어나며, 실수할 것 같은 두려움에 침묵을 지키거나 무관심, 무능력자라는 劣等感 등으로 發說을 꺼리는 등 참가자의 심리적, 사회적, 지적인 요소에 의한 운영상의 難點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구에서는 구성원을 되도록 같은 수준(모든 면에서)으로 모으기 위하여 테스트를 하여 小集團을 구성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그룹 Arbeit에 대하여는 영국과 미국에서 보편화되었다. 공동의 목표와 생산력을 향한 하나의 그룹은 大學教授法의인 차원에서 영국의 옥스퍼드·케임브리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tutor 제도로서 “교수 하나에 학생 하나”가 가장 이상적이며 다음이 face-to-face 특징을 지닌 小單位 그룹이다. 大學教授法에서의 그룹은 여타 그룹과는 달리 서로 개별적으로 잘 알고 있지도 않으며 또한 個人을 사귀었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룹 구성원은 disjunctive하고 대부분이 타인에 상관치 않고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모인, 여러 점으로 차이가 있으나 잘 다듬어진

맑은 정신의 청년들이다. 이들은 그룹 분위기에 젖지 않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며 生産的으로 方向을 돌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스스로 모였고 대학에서 제공하는 討論題目을 중심으로 모였으며 때때로 “우연히” 참가하게 된 학생도 있으나 그룹의 분위기가 이들을 잘 흡수하여 사회적, 심리적 또는 내적 소외감을 밖으로 해소시켜 하나의 共同體를 만듦으로써 단려진 마음을 열게 하고, 감겨진 학문적 탐구심을 자극하며,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에고이즘을 학문연구 속에서 자연 純化시켜 준다. 大學教授法의 category에서는 그동안 대학교수법의 내부구조적 실제의 同質性, 異質性, 協同的·補充的 構成의 원칙, 人性的, 動因, 指導有形 및 그룹의 크기 등이 그룹 Arbeit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하여 연구하여 왔다. 교수법적인 관계의 내부적인 役割差等은 강사, 학생 또는 외부의 물리적 작용에 의하여 변한다. 그룹價値는 목표 달성의 성취정도에 따라 형성되며, 그룹姿勢에 영향을 준다. 그룹凝集力이 또한 참가자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룹同調는 자칫 일률적인 가치를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도 있고(The group effect is essentially a trend toward homogeneity or reduction of variance), 참가자들의 학습활동에 制動役割도 가능하다(reward-cost-exchange).

그룹의 크기 정도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 媒介變數로 작용한다 :

- (1) a range of verbal participation potential among the members
- (2) no systematic interference with the free competitive expression of this potentials
- (3) a lack of well-differentiated roles among the members

그룹의 크기는 16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2명까지를 큰 그룹, 8명까지를 보통그룹, 그러나 集中的인 토의는 3~6명이 적합하다. 단순한 問題提起를 목적으로 하는 그룹의 구조는 같은 수준의 구성원이 필요하며, 관념복합적인 課題를 위한 그룹은 높은 수준의 구성원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단순한 認知에 관한 과제를 위한 그룹은 규모가 클수록 좋다.

그룹토의에 있어서 지도자인 교수의 役割과 機能에 대하여는 대학교수 자신이 많은 연구와 정확한 관찰력, 추리력, 논리성 등이 갖추어지는 것을 前提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基本原理를 잊지 말아야 한다.

(1) 세미나 지도자는 자기 개인의 영향력이 그룹 내에 작용하는 것을 되도록 억제시켜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討議題目이나 領域에 관한 전문지식, 경험, 흥미, 토의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끄집어내는 것이므로 완벽한 이론, 흥미없는 대상, 너무 어려운 내용의 산발적인 취급은 불필요하다.

(2) 討議中에 생겨지는 갈등, 학술적인 언쟁 등은 가능한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도록 방치되어 陳述內容이 비합리적인 것, 상반되는 내용의 선택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배경으로 한 중립성, 진술과정에서 矯正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서 간단 명료하게 적당한 시기에 자연스럽게 교정해야 한다.

(3) 토론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뚜렷한 目的意識을 잃지 말아야 한다. 대화중에는 빈번히 테마와 관계가 없거나 또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 아닌 다른 방향의 陳述들이 나타나는데 주관자의 뚜렷한 목적의식은 이를 항상 바로 잡는 데 자연스러워야 한다. 동시에 시간을 조정하여 최종적인 결론이 확실하게 시간의 종료와 함께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討議過程에서도 필요에 따라 중간결론을 정리해 주어야 한다.

### 3. 講師中心 또는 學生中心의 학습

大學教授法에서는 강의는 강사중심의 학습이며 억압적 방법이고, 토의는 학생중심 학습이며 민주적인 교수방법이라 한다. 토의도 경우에 따라서는 억압적 방법으로 誘導해야 할 경우가 있다. 학생중심의 학습방법은 학습대상중심의 教授方法을 요구한다. 학습대상중심의 교수방법은 다시 그룹중심의 교수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大學教授法的인 차원에서 대학생의 自己學習과 프로젝트 학습은 대학교육의 목적과도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교수방법이다. 대학 1학년에서부터 이미 책 읽기, 간추려 쓰기, 작은 논문 쓰기, 논

문 발표, 프로젝트 학습 등의 훈련이 시작되어야 한다. 大學財政을 극비에서 부담하는 서구의 대학들과 대학자체의 재정과 학생들에게서 받은 재정과 기타 수입으로 운영되는 미국의 대학들은 大學教授法的인 차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미국의 여러 대학들에서 선택적으로 또는 보충적으로 사용되는 independent study는 엄밀하게 따져서 학생중심의 학습방법이다. 교수로부터 해방된 個體學習은 대학과 교수와 학생의 관계와 교과과정, 교과서, 기타 학습교재에 이르기까지 대학교육의 전 영역에서 학생의 능력에 따라 有用性이 좌우되므로 교육평가적인 측면에서는 서구의 대학들보다 수월해지지만 교수간의 차이가 노출되므로 문제가 생긴다. 서구의 대학에서는 教科內容을 학기마다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공부할 내용들이 제공된 이상 학생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學習計劃(시간표)을 스스로 세운다. 자율학습의 분위기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대상을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목표까지도 정한다. 그러나 評價에 들어가면 교수의 권위가 살아난다. 그러나 순수한 교수법적인 면에서는 미국의 대학이나 서구의 대학이나 차이는 없다.

우리 나라의 대학은 사정이 다르다. 학생들의 質이 천차만별이고 또한 그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나 대학은 그들을 가르쳐야 할 義務가 있다. 강의만으로 학생들을 졸업시켜서는 어디 大學教育을 시켰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한편으론 학문을 연구하도록 돕고 지도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받아들이고 판단할 수 있는 能力을 길러 주도록 그들이 중심이된 교수방법을 시급히 응용해야 하겠다.

大學教授는 교수법적인 면에서 두 가지 임무가 있다: 대학 입학시험 준비로 굳어진 두뇌, 경쟁의식으로 단려진 마음, 그러나 앞으로 활짝 피어 오를 준비가 된 마음과 머리를 가진 신입생들을 人格形成의 마지막 단계로서의 대학생활을 갖도록 전문적인 학문에서 보호해 주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장래를 위하여 나보다 나은 학문적으로 成熟한 인간을 만드는 일이다. \*